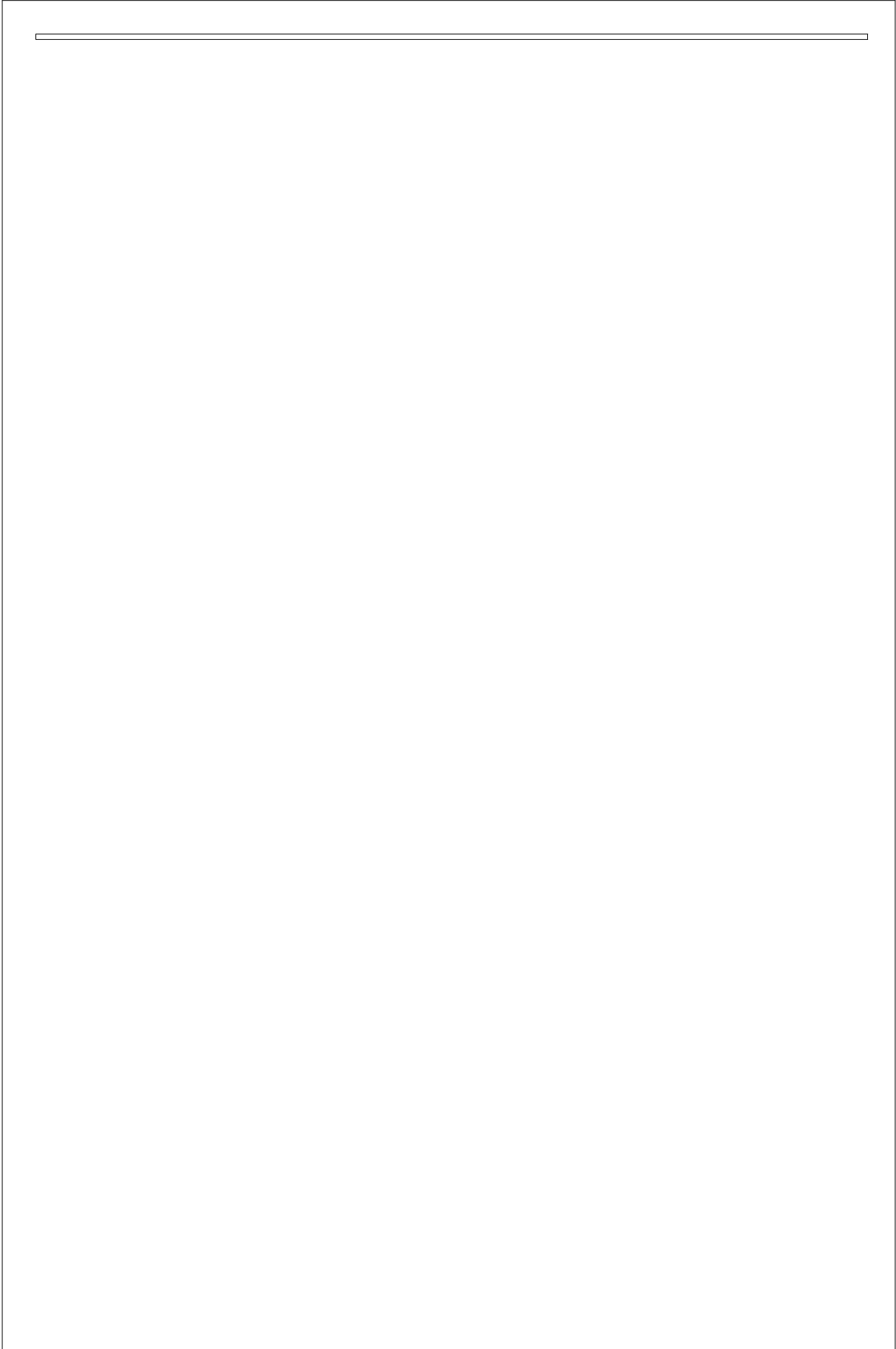


[국산T]

**2017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미수록 부분 & 유사작품
[Part2]**

Orbi Class

[광릉한샘기숙학원]



수능특강 63P '속미인곡' 엮어읽기 (사미인곡)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 몸이 태어날 때에 님을 따라 태어나니,

혼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한평생 함께 살아 갈 인연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접어 있고 님 하나 날 꺾이니,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은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터 노여 업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다.

▶ 임과의 인연

平生(평생)에 願(원)하요터 혼터 네자 하였더니,
평생에 원하되 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늪기야 무슨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늪어서야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워하는고?

엇그제 님을 피서 廣寒殿(광한뎌)의 올랐더니,
엇그제는 님을 모시고 광한전(궁궐)에 올라 있었더니,

그더터 엿디하야 下界(하계)에 내려오니,
그 동안에 어찌하여 속세(창평)에 내려 왔느냐.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年(삼년)이라.
내려올 때에 빗은 머리가 형클어진 지 3년일세.

臙脂粉(연지분) 잇는마는 늘 위하야 고이 홀고.
연지와 분이 잇네마는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꼬?

마음의 띠친 실음 疊疊(텃텃)이 빠져 이셔,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깃는니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깃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人生(인칭)은 有限(유한)하터 시름도 그지업다.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 이별 후의 그리움

無心(무심)하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가는구나.

炎涼(염냥)이 재를 아라 가는 듯 고태 오니,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지나갔다가는 이내 다시 돌아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 세월의 무상함

서사 -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헤터내니,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窓(창) 밧기 심근 梅花(미화) 두세 가지 띄여세라.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띄었구나.

又得 冷淡(닝담)흔티 暗香(암향)은 뜨스 일고.
가뜩이나 쌀쌀하고 답답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고?

黃昏(황혼)의 들이 조차 벼 마티 빗춰니,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느껴 우는 듯, 반가워 하는 듯 하니,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花(미화) 짓거 내여 님 겨신 티 보내오져.
저 매화를 꺾어 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꼬?

▶ 춘원春怨 - 매화를 꺾어 입에게 보내 드리고 싶음

꽃디고 새 님 나니 綠陰(녹음)이 짙렸논티,
꽃잎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짙었는데,

羅幃(나위) 寂寞(적막)하고, 繡幕(슈막)이 뷔여 있다
(님이 없어)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 있다

芙蓉(부용)을 거더 노코, 孔雀(공작)을 돌려 두니,
부용꽃 무늬가 있는 병풍을 걷어 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돌려 두니,

又得 시름 한티 날은 엇디 기듯던고.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지루하게) 길던고?

簾窗(원앙금) 버혀 노코, 五色線(오색선) 플터 내여,
원앙새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히 견화 이셔 님의 옷 지여 내니,
금자로 재어서 님의 옷을 만들어 내니,

手品(슈품)은쿠니와 制度(제도)도 ㄱ즐시고,
숨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격식도 갖추었구나.

珊瑚樹(산호수) 지게 우히 白玉函(백옥함)의 다마 두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그 옷을) 담아 얹어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티 바라보니,
님에게 보내려고 님계신 곳을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千里 萬里(천리 만리) 길홀 뉘라셔 츠자갈고.
천만리나 되는 먼길을 누가 찾아갈꼬?

니거든 여려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가거든 (이 함을) 열어 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 하실까?

▶ 하원夏怨 - 입에 대한 알뜰한 정성

흐릿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뵈 제,
하룻밤 사이 서리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危樓(위루)에 혼자 올라 水晶簾(수정렴) 거든말이,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 발을 걸으니,

東山(동산)의 달이 나고, 北極(북극)의 별이 뵈니,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이므로,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청광)을 쥐어 내어 鳳凰樓(봉황누)의 붓티고져.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 내어 님이 계신 궁궐에 부쳐 보내고 싶다.

樓(누) 우회 거리 두고, 八荒(팔황)의 다 비취어,
(그러면 님께서는 그것을) 누각 위에 걸어 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

深山窮谷(심산궁곡)을 접нат 마티 텅그쇼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 추원秋怨 - 선정을 갈망함

乾坤(건곤)이 閉塞(폐식)하야 白雪(백설)이 흔 빗친 제,
천지가 겨울 추위에 얼어 생기가 막혀, 흰 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사람은 ㄴ니와 놀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날짐승도 날아다니지 않는다.

蕭湘南畔(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리커든
(따뜻한 곳이라 하는) 소상강 남쪽 둔덕(전남 창평)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玉樓高處(옥누고처)야 더욱 닐러 으스스하리.
하물며 북쪽 임 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랴.

陽春(양춘)을 부쳐 내어 님 겨신 터 쏘이고져.
따뜻한 봄기운을(부채로)부쳐내어 님계신 곳에 쏘게 하고 싶다.

茅簷(모첨) 비취어 휘를 玉樓(옥누)의 올리고져.
초가집 처마에 비취어 따뜻한 햇볕을 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紅裳(홍상)을 니미 차고, 翠袖(취슈)를 半(반)만 거더,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올려,

日暮脩竹(일모슈죽)의 험가림도 하도 할사.
해는 저물었는데 멋있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이것저것 생각함이 많기도 많구나.

다른 희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짧은 겨울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푹푹이 앉아,

靑燈(청등) 거른 것티 鈿空篋(뎨공후) 노하 두고,
청사초롱을 걸어 둔 옆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舊錦(양금)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원양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아, 이렇게 홀로 외로이 지내는)이 밤은 언제나 썰꼬?

▶ 동원冬怨 - 임에 대한 염려

본사 - 임을 그리는 마음

흐르도 열 두 제 흐 들도 설흔 날,
하루도 열두 때, 한달도 서른 날,

저근덧 싱각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잠시라도 님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해도

막음의 락쳐 이서 骨髓(골슈)의 께터시니,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

扁鵲(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흐리.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하라.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모 가지마다 간티 족족 안니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앓고 다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뜨리라.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읊으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흐노라.
님께셔야(그 범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결사 - 변함 없는 충성심

수능특강 67P '규원가' 미수록 부분

(중략부분)

도로혀 풀쳐 혜니 이리혀여 어이혀리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족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거문고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츠 섯거 타니,
근심, 걱정을 달래니

소상야우(蘇湘野雨)의 뎃소리 섯도논 듯,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논 듯,
→ 거문고 연주 소리가 너무 슬프고 처량함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넛 소래 잇다마논
아녀자의 손 숨씨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히니 뉘 귀에 들릴소니.
들어줄 입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비구비 쓴쳐서라.

[독수공방의 외로움]

수능특강 71P '선상탄' 미수록 부분

(중략부분)

이런 일 보견대, 배 삼긴 제도(制度)야
만든

지묘(至妙)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 지극히 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된 우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빛기 타고,
→ 나는 듯이 빠른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임풍영월(臨風咏月)허되 흥(興)이 전혀 없는 것인가.
바람과 달을 보며 시를 짓고 놀

석일(昔日) 선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 옛날 배 안에는 술상이 어지럽더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장창(大劍長鎗)뿐이로다.
→ 금일 배 안에는 큰칼과 긴 창뿐이로다.

한 가지 배이건마는 가진 바가 다르니,
→ 배는 한가지인데 지니 바가 다르니 그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
→ 사이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도다.